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e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國際部(TEL.:553-0941/7)로 연락 바랍니다.

1. 한국, 캐나다, 일본산 CPT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1990) 요청 없음

1990. 1. 1~12. 30기간에 해당하는 한국, 캐나다, 일본산 CPT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요청이 미 상무부에 접수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드(Bonding)율로 본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토록 명령했다.

2. 미국의 대일 반도체 시장 점유율 증가하였으나 기대치에 훨씬 못미침.

신반도체 협정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행한 제1분기 산정결과에 의하면 '91. 3/4분기의 미국의 대일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4.3% 기록. 이 점유율은 신협정에 따라 지난 6월 계산된 13%보다 증가한 것이나 20% 목표 수준에 아직 못 미치는 수치이다.

미국 관리들에 의하면 1992. 12까지 20% 목표치 달성은 "실제로 벽찰" 것으로 전망했다.

3. 부시 방한시, UR, 핵문제가 이슈

부시 대통령은 최근 '91. 11. 5 예정되었던 그의 현행 극동 순방은 미국의 수출 위한 시장 개방과 고용기회 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21명의 미국 주요 업체 임원들이 부시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순방 주역점은 미·일 자동차 무역이 될 것이며, '92. 1. 5 한국을 방문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 11월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

원 선거에서 전 법무장관 리차드 스톤버그의 참패와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 치중에 대한 비난이 증가한 반면에 미국의 경기침체 지속 이후 아시아 순방 목적을 교역문제로 전환했다.

미 행정부의 대일 통상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에서 리차드 게파르트(民-미주리주) 다수당 원내총무가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자동차 수입에 대한 강경한 새로운 법안의 상정을 계획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의 통상 문제의 대부분은 UR, 외국인 투자 장벽과 과소비 반대운동에 대한 미국측의 불만에 초점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가 최대의 안건이 될 것이다.

본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문제점과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를 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지역에서의 예외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증권시장개방과 금융시장을 자유화하기로 한 최근의 조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언론보도는 한국은 어떠한 양보도 준비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부시방문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4. 게파르트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와 민주당 의원들 일본의 자동차 무역흑자 축소를 겨냥한 법안을 상정

'91. 12. 20 리차드 게파르트 하원 다수당 원내총무, 돈 리글 상원의원, 산더 레빈 하원의원, 데이비드 본이어 하원의원, 데일 길디하원

의원, 존 던젤 하원의원 등 미시건주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유익한 "1992년 무역 증진법(The Trade Enhancement Act of 1992)"안 상정 계획을 발표했다.

제안된 본 법안은 일본의 91년 쌍무 무역협약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매년 20%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무역협약 축소치를 달성치 못할 경우 하기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1992년 기존의 부품업체로부터 부품 수입이 60% 미만인 일본의 자동차 판매는 현행 수준(3.8백만대)을 유지
 - 자동차 부품 교역에서 일본의 반경쟁력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와 일본산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반덤핑 케이스 착수 요청.
 - 자동차와 트럭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카의 관세 분류 변경.
- 이는 1989년 재무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며 해당 차량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 전세계 시장접근과 생산을 합리화 위해 일본과 EC와의 협상을 요구
 - 기타 규정

5. 미 세관 중개업자, NAFTA하에서의 관세 환급의 존속을 요청

미 전국 세관 중개업자(National Customs Brokers)들과 운송업자 협회(Forwarders Association)가 시행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하의 관세 환급 철폐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미국의 여러산업들을 황폐화 시킬 것이며 본 프로그램하의 수백만불의 수입관세 상환을 요구했다.

본 보고서는 명백히 관세 환급은 제3국의 자유무역에서 이익을 보고 미국업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본 보고서는 관세환급은 업체의 대 멕시코 투자 결정에 있어서 단지 명목상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1990년 미국 수출업체들을 관세환급 상환에서 3억 2천1백만불을 요청 했으며, 이는 대 캐나다와 멕시코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관세환급 상환 클레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6. EC 정치·통화동맹

EC 12개국 수상들과 외무장관들은 오는 12월 9, 10 양일간 정치 및 통화 동맹에 관한 합의문 채택을 위해 네델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회담을 개최했다. 이미 예비 협상으로 어느정도 부수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었으나 단일화폐, 정치동맹, 사회현장, 공동외교안보 그리고 이민정책 등이 주요 미결문제로 남아 있다.

7. EC 전자산업 가이드 라인

EC 상공장관들은 EC의 컴퓨터산업과 전자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C 가전부문의 향후 발전을 위한 지침으로서 역할하게 될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 결의안은 EC가 공정한 국제교역을 확립하고 전자산업에 단일시장계획을 통한 유리한 사업환경을 제공하며, 유럽 표준화를 촉진하고 모험자본(Risk Capital) 제도의 검토의 필요성과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경쟁법적 관점하에 평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류의 결의안에서는 처음으로 가전부문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는데 R&D 계획이 핵심기술과 이의 소비자를 위한 응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동 결의안은 보호주의 무역을 선호하는 佛, 伊 등과 자유시장 무역을 선호하는 영국 등과 의 마찰의 위험을 모면하였다.

8. 한·EC 통상회담

한·EC간 통상회담이 지난주 개최되었는데 한국측의 주요 관심사는 반도체, VTR, Car Radio 등에 대한 EC의 반덤핑 조치와 자동차 수입규제 등인데 반면 EC측은 주류 수입관세와 통관절차의 문제점 등 이었다.

9. 헝가리, 폴란드, 체코

EC와 헝가리, 폴란드, 체코는 이들 국가들간의 상품 및 인력 자원, 서비스의 자유로운 왕래를 목적으로 한 점진적 국경 개방에 관해 합의를 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정식으로 합의문에 조인할 예정이다. 비록 동구 3국의 시장개방기간이 상대적으로 더딜지라도 쌍방은 상호 시장접근이 허용될 것이다.

이들 동구 국가들로 부터의 저가 철강 수입품에 대한 스페인의 우려를 해소키 위해 철강부문의 타협이 있었으며, EC 섬유 산업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약들이 첨가되었다.

10. EC 집행위 행정자료 열람권

EC 사법재판소는 유럽 소비자단체(European Consumer's Organization : BEUS)가 한국, 일본, 홍콩산 오디오 카세트과 이와관련 1989년 조사가 개시된 반덤핑 Case를 다룬 EC 집행위 서류중 일부 Non-Confidential 부분을 열람할 권리가 없음을 판결, 동 법정이 BEUC는 EEC 반덤핑 규정 2423/88에 따라 일부 Non-Confidential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는 EC 집행위의 주장을 인정함에 따라 BEUC의 자료 열람권을 거부한 EC Council의 행위는 정당한 행정절차의 원칙에 위반이 아니다.

11. 우루과이 라운드(UR)

GATT 사무국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12월 5일부터 시작될 최종협상타이틀을 요청해 놓은

가운데 108개 GATT 참가국중 30개국이 현행 라운드에서 협의되고 있는 7개 부문중 하나인 GATT 통상(특히 반덤핑, 보조금 분야) 개정과 관련 그들의 우려를 표명한 성명을 발표했다.

동 성명서에서는 반덤핑 조치가 위장된 보호 무역주의의 형태로서가 아니라 제품이 덤핑 되었을시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좀더 명확하고 엄밀한 한 규정을 설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여타분야는 해외 현지 공장이 현지 부품을 사용토록하거나 일정 수출목표를 달성토록 요구하는 통산관련 투자 규정, 수출자율규제협정 그리고 국제수지 보호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 마스트리히트 회담

EC 12개국 정상들이 지난주 정치 및 통화동맹에 관한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유럽 국가들간 긴밀한 동맹의 기본틀을 확립하게 되었으며, 이는 세가지주요 핵심사안과 함께 특정국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합의된 일련의 규약들을 포함하고 있다.

3가지 주요 핵심사안중 그 첫째는 로마조약의 확대로서 EC공동체 기구들에게 환경, 교육, 소비자 보호, 공중위생, 범유럽 네트워크(도로컴퓨터, 통신망 등)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역할 증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히 유럽 의회는 일련의 입법안에 대한 비토권이 강화될 것이며, 유럽 중앙은행을 설립하여 1999년 이전에 유통 예정인 유럽 단일화폐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 첫째 사안은 가장 중요한 규약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영국을 제외한 모든 EC 국가들이 공동 사회법을 제정하도록 하며, 통화 동맹 최종단계까지 항구적인 EC의 태도를 천명하며,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등의 국가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보장하는 경제·사회단결에 관한 규약 그리고 영국은 통화동맹의 최종단계에서 물러설 수 있도록 허용하며, 덴마크는 통화동맹 가입전 국민투표를 실시토록 허용하는 규약들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로마제약 119조에 적용되는 규약으로 연금 처우에 관한 남녀 평등법이 1990. 5월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EC기업들은 수입억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둘째와 세째 사안은 향후 나토와 병행케 될 공동 유럽 방위정책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공동 외교 안보정책과 이민·망명 그리고 조직범죄, 마약밀매 등을 다루게 될 치안과 사법 협력 등이다. 비록 EC12개 회원국들이 원해오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번 마스트리히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들은 지난 5년간의 EC의 업적들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1986년의 SEA(Single European Act : 유럽 단일시장 완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EC 조약을 수정) 정도의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한편 1992년 중반 보수·노동당간 총선을 치를 예정인 영국은 위와같은 진보적 행보의 회담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3. Eco 라벨

EC 환경장관들은 Eco 라벨로 잘 알려진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는 소비자 제품을 구분짓기 위해 범EC적인 상품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동 계획이 자의적이며 자치권적이나 EC 집행위는 소비자 그룹, 환경단체, 산업체 등과의 협의와 함께 회원국 전문가 들로 구성된 조절위원회를 통해 표준을 설정할 것이며 이 표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은 라벨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개별 회원국 수준의 라벨링 도입은 EC 차원에 준할 것이다.

14. 폐기물 처리

영국에서 발간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EC는 조만간 제조업자들에게 재생목표를 설정해 주고 이에따라 업자들은 제품(Brown goods :

White goods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주로 TV, VCR, 오디오제품 등을 칭함)을 재생 가능토록 설계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올해초 독일은 산업체들에게 1995년까지 생산된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의 80%를 회수해 그중 80%를 재생토록 하고 있다. EC집행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포장용 폐기물 처리법안을 준비중에 있다.

- 산업체는 5년 이내 60%의 포장용 폐기물(중량으로)을 회수(10년 이내 : 90%)
- 5년 이내에 40%의 포장용 폐기물을 재활용(10년 이내 : 60%)
- 10년 이내에 EC내 1인당 포장용 폐기물 생산을 연간 150Kg 이하로 억제(1991년 수준에서 억제)

15. Car Radio

현재 진행중인 한국산 Car Radio 반덤핑 조사의 예비판정은 '92년 1월 둘째주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판정과 관련한 집행위의 제안은 반덤핑 자문위를 통과했으며 현재 관보 발표를 위해 EC 공식어로 번역되고 있다.

16. EC 반덤핑조치 비난

경쟁법 관련 EC 집행위원은 EC 산업들에 의한 반덤핑 조치의 사용을 비난하며, 이 조치로 전체 유럽의 이익은 덤핑 수출업자가 받은 규제 이상으로 피해를 보았음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별히 1985년 EC생산자들의 제조로 개시된 일본산 복사기의 경우를 예를 들어 반덤핑 관세부과로 EC의 복사기 소비자들은 EC업체 총생산액의 2배(연간 4억 ECU로 추정)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으며, 반면 국내 생산자들의 시장 점유율은 16%에서 10%로 격감했을 뿐 아니라 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 일본산 복사기 유통과 관련한 그들의 사업을 악화시켰음을

지적했다.

이와같이 EC 경쟁정책과 EC 통상정책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17. GATT 우루과이 라운드

GATT 사무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서 초안 상정 마감일을 12월 18일로 정하며 조속한 협상타결을 재촉하고 있으나 동 일정의 실현여부는 특히 농업부문의 진전에 달려 있으나 농업부문 보조금을 관세 형태의 제도로 대체하려는 EC와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간의 의견조정이 극히 미약하게 진행되고 있다.

'92년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아직 미결부문이 조만간 타결되지 않을시 미 의회는 1992. 3월 이후의 합의사항에는 비준치 못할 것이다.

18. GSP

내년도 EC의 GSP 공여 계획이 EC 이사회를 통과했다. 1992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이나 대한민국 GSP재공여기간 등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다.

19. 프랑스, 첨단기업 재정비안

프랑스 정부는 정부 소유의 첨단 기업들의 재정비를 제안할 것이다. 이는 전자, 핵 그리고 생체기술 등에 기초한 하나의 첨단기술그룹을 설립하려 하는 것인데 프랑스 상공장관에 따르면 이는 EC 경쟁법에 의거 이들 부문의 프랑스 정부 소유 기업들의 부분적 혹은 전적 흡수·통합을 통해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탈리아의 Olivetti그룹 회장은 OIS(Olivetti 자회사)와 정부 소유의 Finciel사와의 합병으로될 이탈리아 최대의 컴퓨터 회사 설립은 시장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필수적이었음을 언급했으나 동시에 일본의 히타치와 Finciel간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20. 반도체 관세

현재 수입 컴퓨터 마이크로칩에 부과중인 14%의 EC 관세 철폐를 위한 비공식 협정이 이태리 Olivetti와 프랑스의 Machines Bull 그리고 미국의 SIA(미국 반도체 제조자 협회)간에 체결되었다.

EC 칩 생산자들인 SGS 톰슨과 지멘스, 필립스는 관세 부과를 주장해 온 반면 EC 컴퓨터 업체들은 칩에 대한 관세부과로 비용상승과 자신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주장해왔다. 일본산 DRAM과 EPROM은 EC에서 최저가격인상(Price Undertaking) 규제를 받고 있으며 한국산 DRAM은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21. EC 뉴스단신

지멘스는 Nixdorf社의 지분 95%를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Siemens Nixdorf Informations System"을 설립할 것임을 발표했다. 지멘스가 소유한 Nixdorf社 주식은 Nixdorf사를 그룹사로 합병키 충분한 것이다.

필립스사는 '91년초 274,400명의 인원을 '91년 9월까지 250,200명으로 감원했다. 또한 이 회사는 시장의 침체와 이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으로 올3/4분기 경영수익이 10% 하향했다.

Group Bull사는 몇몇 미국 정보기술업체들과 기술협력 제휴와 장밋으로는 지분 투자를 통한 긴밀한 제휴 등을 위해 협의중에 있다. 관련된 미국 회사들은 IBM과 디지털 이퀴브먼트, 휴렛팩커트 등이다.

22. 필리핀 투자환경 안내

- 1)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장려 정책
- '87 신투자법 발표로 외국인 투자, 과실송금, 투자금회수 보장
- 100% 외국투자 허용

- 합작회사의 토지 소유 허용
 - 2) 유리한 세제 혜택
- 수출산업에 4~8년간 법인세 면제
- 수출용 원부자재의 관세 및 제세금 면제
 - 3) 고학력, 정미급 노동력
- 노동력 전체중 고졸 54%, 대졸 38%
- 숙련공 평균임금 : U\$120/월
 - 4) 원활한 언어소통
- 공용어 영어 사용으로 언어 소통 문제 해소
- 한국과 비슷한 문화권으로 관리용이
 - 5) 최적의 우회생산기지
- 근거리에 위치한 해외생산기지
- GSP의 최장 수혜국

〈LAGUNA 국제공단 개요〉

- 1) 공단명
- Laguna International Industrial Park
- 2) 위치
- Laguna군 Binan시, Ganado 및 Manplasan
- 고속도로 및 인터체인지 인접
- 3) 규모
- 35만평
 - 공장부지 : 28만평
 - 도로 및 부대시설 : 7만평
- 수출자유지역 60%, 일반산업지역 40%
- 4) 조성
- '91. 4~'92. 8
- 5) INFRA

- 전력—공단내 자체 변전소(50MVA급)
- 통신—전화, Fax, Telex
- 급수—중앙공급식
- 배수—우수와 오수 구분 배수
- 도로 : 주도로—20cm
부도로—13~17m
- 통관—공단내 세관통관(항구의 통관절차 불필요)
- 발전성—Calabarzon 중심부에 위치
 - 6) 수출자유지역
- 총 공장 부지 면적중 60%(약 17만평) 수출자유지역
- 수출업체에 대한 최대 편의 제공
 - SGS 검사 면제
 - 각종 세금면제
 - 원·부자재 조달 및 완제품 출하 용이
- 7) Calabarzon 개발계획
- 마닐라 남부 5개주 공업화 촉진을 위한 IN-FRA 건설 확장계획('91~'93)
- 도로, 항만, 발전소, 통신시설 신·증설
- Laguna 국제공단 50km 남부 Batangas에 대규모 항만 및 발전소(Calaca 화력 발전소 : 300MVA) 건설
- ※상기 Laguna 국제 공단 입주에 관심있는 업체는 본회 국제부 미주과(Tel : 555-6187) 혹은 삼성물산 프로젝트 사업부 필리핀 공단개발 T/F(Tel : 751-3838)로 문의 바람.